

북구, ‘제5회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

14~15일 북구드론공원서 진행
4개 리그… 총 48개팀 행사 참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전국 드론 동호인들이 모이는 드론축구대회를 연다.

광주 북구는 오는 14~15일 북구드론공원에서 ‘제5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인적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북구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드론 행사이다.

대회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와 (사)대한드론축구협회(KDSA)의 경기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올해는 ‘초중부’를 비롯해 ‘세미프로’, ‘마스터즈’, ‘챌린저스’ 등 4개 리그에 총 48개팀, 500여명의 드론 동호인이 참여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14일에는 대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미프로(8팀), 마스터즈(8팀), 초중부(16팀)의 예선·4강·결승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챌린저스(16팀)의예선·4강·결승 경기 및 시니어 이벤트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리그별 순위 결정 방법은 ‘세미프로’의 경우 모든 팀이 한 번 이상 경기를 진행한 뒤 다승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풀리그 방

식이고 나머지 3개 리그는 조별 예선을 거쳐 상위 팀들이 4강에 진출하는 리그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결과 리그별 1위부터 4위까지의 팀에는 상패·상장 수여와 함께 1400만 원 규모 상금이 순위별로 차등 지급되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에게는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펜타การ์ด, 스카이크 에보 등 드론 관련 상품이 주어질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전국 대회가 전 연령의 드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북구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드론공원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드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광산구, 올해 1기분 부과·고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총 9만1000건, 111억7500만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금은 상반기 세금으로, 지난 1월~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광산구 누리집과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앱, 전국 은행 창구,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 관련 문의는 광산구 세무2과로 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인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

남구, 지역 연계 사업 본격화
지역화폐 발행·햇빛 연금 등

광주광역시 남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발맞춘 지역 연계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1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5일부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정부 재정사업 및 공모 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남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 파악을 마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남구는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연계 정책 101건과 세부 추진 과제 186건을 발굴했다.

대표적인 주요 과제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을 비롯해 주민 참여형 햇빛 연금 및 태양광 설치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 흐름과 지역 정책의 접점을 찾는 이유는 정책 실행력을 비롯해 재정 확보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이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이웃이음돌봄서비스’ 추진
북구, 12월까지 총 7회 진행
취약계층 간식 배달·안부 확인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이음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웃이음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고립으로 돌봄이 절실한 1인 가구 중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웃돌봄미가 간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 상황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북구 관내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 14개 단지에 거주하는 돌봄취약계층 14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7회 진행된다.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을 파악 및 관리 중인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추천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북구는 이웃돌봄미를 구성해 매월 첫째 주 화·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단지별로 제과제빵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파악된 서비스 수요나 위기 상황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연계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 간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 김일 서구파크골프협회 회장 등이 11일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하부에 열린 덕흥파크골프장 18홀 확장 개장식에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서구 덕흥파크골프장, 18홀 정규코스로 ‘새 단장’

수요증가 맞춰…5억8천만원 투입
화장실·조경 등 편의시설도 정비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파크골프장이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맞춰 확장되며, 지역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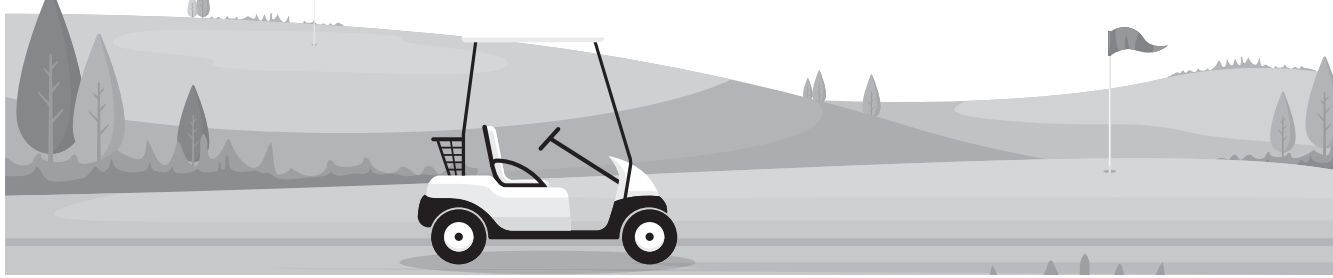
11일 서구는 덕흥파크골프장을 기존 9홀에서 18홀 규모로 확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

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양부남 국회의원, 김일 서구파크골프협회 회장 등 지역인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용 수요가 급증하자, 서구는 총 5억 8000만원을 투입, 기존 A코스(9홀) 옆 부지에 9홀 규모의 B코스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덕흥파크골프장은 총 18홀의 정규 코스를 갖춘 지역 대표 파크골프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윤준명 기자

“안전한 여름나기”… 동구, 폭염 대비 종합대응 ‘총력’

1억7천만원 투입…주민보호 ‘초집’
살수차 운영·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광주광역시 동구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대응 대책을 가동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11일 동구는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살수차 운영(3대), 폭염저감시설 추가 설치,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응물품 지원 등이다.

동구는 현재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저감 시설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어르신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개소당 2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통해 생수, 폭염대응 물품, 홍보물 등도 배부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 여름도 폭염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에 중점을 뒀다”면서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